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에 대한 小考

김상운*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If the wind damage people, they feel aversion to wind. If the cold damage people, they feel aversion to cold.(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

Kim Sang-Un

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

I would like to identify when ‘If the wind damage people, they feel aversion to wind. If the cold damage people, they feel aversion to cold.(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 has appeared and what does this hypothesis have affected. I also researched future scholars' opinions and their criticism on this hypothesis.

Methods:

1. Among the books which are related to Cold damage according to the age, books which have original text that has a relationship with this hypothesis were elected. Total of 30 books were elected, and their original text was extracted and analyzed.

Results

1. This hypothesis appeared first on *Hwalinseo*(活人書) in the Song Dynasty, and had lots of impact on future generations.
2. After passing Song, Yuan, and Ming Dynasty, there were some opinions appeared which criticized part of this hypothesis. *Dongeuibogam*(東醫寶鑑) also tried to correct this hypothesis.
3. *Bang Yu-jik*(方有執) of Ming Dynasty straightly opposed this hypothesis on *Sanghanronjobyeon*(傷寒論條辨) for the first time. It had huge influence in the Qing Dynasty and lots of scholars suggested that this hypothesis lacks persuasion.
4. Just like Qing Dynasty, this hypothesis is not accepted in the books of modern ages.

Conclusion

This hypothesis appeared in the Song Dynasty for the first time and had lots of influence, but some counter arguments had appeared as time passed, and during Qing Dynasty, this hypothesis lost its credibility with lots of criticism.

Key Words

Wind damage(傷風), Cold damage(傷寒), Aversion to Wind(惡風), Aversion to Cold(惡寒)

* 교신저자 : 김상운 / 소속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063-850-6978 / E-mail : kimsangun81@hanmail.net
투고일 : 2014년 3월 31일 수정일 : 2014년 4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24일

I. 서론

『현대상한론』에서는 『傷寒論』條文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翕翕惡寒, 淅淅惡風, 翁翁發熱, 鼻鳴乾嘔者, 桂枝湯主之.”에 대해 “惡風과 惡寒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며, 단지 惡風만 있고 惡寒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傷風則惡風’¹⁾의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고 하였으며²⁾, 중국 熊曼琪의 『傷寒論』에서도 역시 喻嘉言의 말을 인용하여 “傷風에 惡風하고 傷寒에 惡寒하니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폐해가 크다.”고 하였다³⁾.

여기서 말하는 傷風에 惡風하고 傷寒에 惡寒한다는 설명은 간략히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傷風에 惡風하지만 惡寒하지 않고, 傷寒에 惡寒하지만 惡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說을 따르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中醫診斷學』에서는 惡風이 傷風을 진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⁴⁾. 또한 김⁵⁾은 傷風에는 림프계가 울체되어 조직층이 압박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惡風이 나타나고, 傷寒에는 말초혈관의 폐색되기 때문에 惡寒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傷風과 傷寒을 惡風과 惡寒으로 엄밀히 구분하여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

『傷寒論』에서 이 說을 뒷받침하는 條文을 살펴보면, “太陽病, 發熱, 汗出, 惡風, 脈緩者, 名爲中

風.”⁶⁾과 “太陽病, 頭痛發熱, 汗出惡風, 桂枝湯主之.”⁷⁾는 傷風에 惡風이 나타남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 嘔逆,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⁸⁾는 傷寒에 惡寒이 나타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른 條文을 좀 더 살펴보면 이 說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太陽病,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疼痛, 惡風, 無汗而喘者, 麻黃湯主之.”⁹⁾와 같은 條文은 傷寒에 惡寒이 아니라 도리어 惡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條文만 살펴보다도 이 說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說은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일까?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방¹⁰⁾의 연구가 있다. 그는 惡風과 惡寒의 증상은 兼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몇의 醫家만을 근거로 제시하여 그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歷代 여러 傷寒家들의 견해를 시대별로 검토해 봄으로써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이 언제 출현하여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後代 傷寒家들의 견해는 어떠했으며, 이 說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II. 연구방법

張仲景의 『傷寒論』에 대한 諸家の 註釋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중국 宋代이다. 『傷寒論版本大全』의 「傷寒論類著作存世書目」에 의하면 宋代

1) 여기서 傷風은 『傷寒論』에서 中風을 말하는데, 中風은 內傷 卒中의 中風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傷風으로 변경하였다. 이하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변경하였다.

2)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한의문화사. 2000: 63-65.

3) 熊曼琪.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41.

4) 朱文鋒, 袁肇凱.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32.

5) 김강. 桂枝湯 方後註文에 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10; 23(1): 23-41.

6)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한의문화사. 2000: 47.

7)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한의문화사. 2000: 67.

8)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한의문화사. 2000: 49.

9)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한의문화사. 2000: 105.

10) 방정근. 『傷寒論』의 “中風”과 “傷寒”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2006; 19(4): 136-146.

에서 1999년까지 간행된 서적은 총 834 종이다. 그 가운데 19세기 이전은 211종, 19세기 이후는 623종이다. 19세기 이후는 짧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의 서적이 간행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문헌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해당 문헌들을 국내에서 쉽게 구해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색 범위를 宋代부터 19세기 이전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현대에 간행된 일부 상한서적들도 검색 범위에 포함시켰다.

『傷寒論板本大全』의 「傷寒論類著作存世書目」에 의하면 宋代에서 19세기 이전까지의 문헌은 총 211종이다. 이 가운데 傷寒學에서 영향이 깊은 주요 문헌을 선별하기 위하여, 『國譯中醫學術史』¹¹⁾의 傷寒 관련부분에서 언급되는 醫家 및 서적과 대조하였고, 그 결과 54종¹²⁾을 1차 선별하였다. 이 가운데 22종¹³⁾은 원서를 구하지 못하여 배제하였다.

- 11) 嚴世芸. 國譯中醫學術史. 고양시, 대성의학사. 2011: 397-420, 636-646, 779-807.
- 12) 『傷寒微旨論』, 『傷寒總病論』, 『活人書』, 『傷寒十勸』, 『傷寒百證歌』, 『傷寒九十論』, 『傷寒發微論』, 『傷寒百問歌』, 『傷寒補亡論』, 『注解傷寒論』, 『傷寒明理論』, 『傷寒標本心法類萃』, 『傷寒直格』, 『傷寒心要』, 『劉河間傷寒醫鑑』, 『陰證略例』, 『此事難知』, 『傷寒保命集』, 『傷寒金鏡錄』, 『醫經溯洄集』, 『傷寒治例』, 『傷寒蘊要全書』, 『傷寒撮要』, 『傷寒論條辨』, 『傷寒準繩』, 『東垣傷寒正脈』, 『傷寒典』, 『傷寒六書纂要辨疑』, 『傷寒補天石』, 『張卿子傷寒論』, 『傷寒括要』, 『尚論篇』, 『傷寒論宗印』, 『傷寒緒論』, 『傷寒續論』, 『傷寒兼證釋義』, 『傷寒論注』, 『傷寒論後條辨』, 『傷寒折衷』, 『傷寒辨證』, 『傷寒論三注』, 『傷寒論集注』, 『傷寒論條辨續注』, 『傷寒大白』, 『傷寒論本義』, 『傷寒貫珠集』, 『傷寒心法要訣』, 『訂正傷寒論注』, 『傷寒懸解』, 『傷寒類方』, 『傷寒約編』, 『傷寒綱目』, 『通俗傷寒論』, 『傷寒論淺注』 이상 1차 선별된 54종.
- 13) 『傷寒微旨論』, 『傷寒心要』, 『劉河間傷寒醫鑑』, 『傷寒保命集』, 『傷寒金鏡錄』, 『傷寒蘊要全書』, 『傷寒撮要』, 『東垣傷寒正脈』, 『傷寒六書纂要辨疑』, 『傷寒補天石』, 『張卿子傷寒論』, 『傷寒論宗印』, 『傷寒兼證釋義』, 『傷寒論後條辨』, 『傷寒折衷』, 『傷寒辨證』, 『傷寒論三注』, 『傷寒論集注』, 『傷寒論條辨續注』, 『傷寒大白』, 『傷寒約編』, 『通俗傷寒論』 이상 배제된 22종.

나머지 32종의 내용을 검토하여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12종¹⁴⁾을 배제하고, 그 결과 20종¹⁵⁾을 2차 선별하였다. 한편 「傷寒論類著作存世書目」과 『國譯中醫學術史』에 모두 실리지 않았지만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4종¹⁶⁾의 서적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현대에 간행된 서적에서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8종¹⁷⁾의 서적도 추가하여, 최종 32종을 선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III. 본론

1. 宋·元代(960년-1368년)

『活人書』(1118, 朱肱)에서는 “傷寒에는 畏寒하지만 畏風하지 않고, 傷風에는 畏風하지만 畏寒하지 않는다.”¹⁸⁾고 하였다.

『傷寒百證歌』(1132, 許叔微)에서는 “傷寒하면 惡寒하지만 惡風하지 않고, 傷風하면 惡風하지만 惡寒하지 않는다.”¹⁹⁾고 하여, 『活人書』의 說을 따

- 14) 『傷寒總病論』, 『傷寒十勸』, 『傷寒九十論』, 『傷寒發微論』, 『傷寒標本心法類萃』, 『傷寒直格』, 『陰證略例』, 『此事難知』, 『傷寒準繩』, 『傷寒典』, 『傷寒貫珠集』, 『傷寒論淺注』 이상 배제된 12종.
- 15) 『活人書』, 『傷寒百證歌』, 『傷寒百問歌』, 『傷寒補亡論』, 『注解傷寒論』, 『傷寒明理論』, 『傷寒治例』, 『醫經溯洄集』, 『傷寒論條辨』, 『傷寒括要』, 『尚論篇』, 『傷寒緒論』, 『傷寒續論』, 『傷寒論注』, 『傷寒論本義』, 『傷寒心法要訣』, 『訂正傷寒論注』, 『傷寒懸解』, 『傷寒類方』, 『傷寒綱目』 이상 2차 선별된 20종.
- 16) 『丹溪手鏡』, 『醫學入門』, 『東醫寶鑑』, 『傷寒正醫錄』 이상 추가된 4종.
- 17) 『柯氏傷寒論注疏正』(李培生), 『傷寒雜病論』(劉建平), 『傷寒論講義』(聶惠民), 『傷寒論』(熊曼琪), 『圖說傷寒論』(白石佳正), 『傷寒論解說』(大塚敬節), 『현대상한론』, 『傷寒論譯註』 이상 추가된 12종.
- 18)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159. “傷寒者, 畏寒不畏風 傷風者, 畏風不畏寒.”

랐다. 하지만 한 서적 내에서 “齋齋惡寒하는 것은 桂枝湯證이다.”²⁰⁾라는 말도 하여, 傷風에 惡風뿐만 아니라 惡寒도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注解傷寒論』(1144, 成無已)에서는 “榮病은 發熱하면서 땀이 없으며 惡風하지 않고 惡寒하고, 衛病은 發熱하면서 땀이 나며 惡寒하지 않고 惡風한다.”²¹⁾고 하였다²²⁾.

『傷寒明理論』(1144, 成無已)에서는 “惡風은 비록 모두 表에 속하지만 發散에는 차이가 있으니 無汗하면서 惡風하는 것은 傷寒이므로 發汗해야 하고, 汗出하면서 惡風하는 것은 傷風이니 解肌해야 한다.”²³⁾고 하였으니, 傷寒에도 惡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傷寒百問歌』(1162, 錢聞禮)에서는 “傷寒하면 畏寒하지만 畏風하지 않고, 傷風하면 畏風하지만 畏寒하지 않는다.”²⁴⁾고 하여 『活人書』의 說을 그대로 따랐다.

『傷寒補亡論』(1181, 郭雍)에서는 “땀이 나는 경우에는 惡寒이 있더라도 傷風에 속한다. 王叔和가 桂枝湯을 쓸 때, 惡寒이 있더라도 麻黃湯으로 바꾸지 않은 이유도 땀이 나기 때문이다.”²⁵⁾고 하였다.

이는 有汗·無汗으로 傷風과 傷寒을 구분함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惡寒이 있더라도 麻黃湯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말은 ‘傷寒則惡寒’을 염두에 둔 말이며, 이는 곧 傷風에도 惡寒이 있음을 말해준다.

『丹溪手鏡』(1312, 朱丹溪)의 惡寒條에서는 惡寒이 傷風에도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惡風條에서는 傷風과 傷寒을 有汗·無汗으로 감별한다고 하였는데²⁶⁾, 이것은 惡風이 傷風과 傷寒에 모두 나타나므로 감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醫經溯洄集』(1368, 王履)에서는 “傷寒病은 대개 風과 寒으로 인해 생긴다. ……(중략)…… 또한 桂枝湯條에서 齋齋惡寒, 漸漸惡風한다고 하였으며, 麻黃湯條에서 惡風한다고 하였다. ……(중략)……그러므로 風과 寒은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²⁷⁾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活人書』에서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이 가장 먼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傷寒百證歌』, 『傷寒百問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傷寒明理論』과 『丹溪手鏡』에서는 傷寒에도 惡風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傷寒百證歌』와 『傷寒補亡論』에서는 傷風에도 惡寒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醫經溯洄集』에서는 傷寒에도 惡風이 있고, 傷風에도 惡寒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宋代에는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이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說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싹텄던 것으로 사료된다.

2. 明代(1368년-1644년)

『傷寒治例』(1396, 劉純)에서는 “無汗하면서 惡

19)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2. “傷寒者, 惡寒不惡風, 中風者, 惡風不惡寒.”

20)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0. “齋齋惡寒桂枝證.”

21) 成無已. 懸吐完譯 注解傷寒論. 서울, 주민출판사. 2012: 126. “榮病, 發熱無汗, 不惡風而惡寒, 衛病, 則發熱汗出, 不惡寒而惡風.”

22) 여기서 榮病은 傷寒, 衛病은 傷風을 말한다.

23) 成無已. 懸吐完譯 傷寒明理論. 서울, 주민출판사. 2006: 10. “惡風, 雖悉在表, 而發散又自不同, 若無汗而惡風者, 則爲傷寒, 當發其汗, 若汗出而惡風者, 則爲中風, 當解其肌.”

24)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0: 45. “傷寒者畏寒不畏風, 傷風者畏風不畏寒.”

25) 郭雍. 傷寒補亡論.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2013: 138. “汗出亦有惡寒者, 亦屬中風, 王叔和, 亦用桂枝, 不以惡寒而改用麻黃者, 謂氣有汗也.”

26) 朱丹溪. 朱丹溪醫學全書·丹溪手鏡.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55. “汗出惡寒表虛也, 可解肌 ……(중략)…… 有傷寒, 中風之別, 無汗傷寒, 有汗惡風.”

27) 王履. 醫經溯洄集. 上海, 上海浦江教育出版社. 2011: 26. “凡傷寒之病, 多從風寒得之. ……(중략)…… 是則風寒常相因耳.”

風하면 傷寒으로 榮病이니 葛根湯으로 치료한다.”²⁸⁾고 하였으니, 傷寒에도 惡風이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醫學入門』(1575, 李梴)에서는 “傷寒에는 惡寒하지만 惡風하지 않는다. 傷風에는 惡風하지만 惡寒하지 않는데, 심한 경우 自汗이 그치지 않고, 오싹 오싹 惡風하고 선뜩선뜩 惡寒하기도 한다.”²⁹⁾고 하여, 惡風하고 傷寒에 惡寒한다는 기존의 說을 계승하면서도, 傷風이 심할 경우 惡寒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傷寒論條辨』(1589, 方有執)에서는 “風이動하면서 寒이 생기고, 寒이 생기면 皮부가 떨어진다. 惡寒하면서 惡風하지 않거나 惡風하면서 惡寒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經』에서 互文³⁰⁾으로 중복해서 말한 것이지 한 쪽에 치우쳐 설명한 것은 아니다.”³¹⁾고 하였다.

『東醫寶鑑』(1610, 許浚)에서는 『醫學入門』을 인용하여 “桂枝湯이 太陽傷風에 ……(중략)…… 惡風寒하는 경우를 치료한다.”³²⁾고 하였으며, 또한 “麻黃湯이 太陽傷寒에 ……(중략)…… 惡風寒하는 경우를 치료한다.”³³⁾고 하여, 傷風과 傷寒에 모두 惡寒과 惡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실제 『醫學

入門』의 麻黃湯條의 主治證을 살펴보면 惡寒만 기록되어 있고³⁴⁾, 桂枝湯條에는 惡風과 惡寒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³⁵⁾. 이는 許浚이 『醫學入門』을 인용하면서 傷風뿐만 아니라 傷寒에서도 惡風과 惡寒이 함께 나타난다고 보고 의도적으로 기록했음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明代에는 기존의 說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傷寒論條辨』에서는 風과 寒이 함께 움직인다는 의견과, 『傷寒論』에서 惡風과 惡寒이 互文으로 쓰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說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한편 同時代 우리나라의 『東醫寶鑑』에서는 桂枝湯과 麻黃湯의 主治證에서 ‘惡風寒’이라 하여 惡風과 惡寒을 한 데 묶어 표현하였으니, 적극적으로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을 비판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잘못된 說을 바로 잡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3. 清代(1644년-1911년)

『尙論篇』(1648, 喻昌)에서는 “惡風하면서 惡寒하지 않는 경우가 없고 ……(중략)…… 惡寒하면서 惡風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後人들이 서로 전하기를, 傷風은 惡風으로 傷寒은 惡寒으로 쉽게 辨證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폐해가 크다.”³⁶⁾고 하였다.

『傷寒括要』(1649, 李中梓)에서는 “太陽病에 無汗하면서 惡風하면 麻黃湯을 쓴다.”³⁷⁾고 하였으니,

28) 劉純. 劉純醫學全書·傷寒治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06. “無汗而惡風爲傷寒, 榮病也, 葛根湯.”

29)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7: 1110. “傷寒, 無汗惡寒不惡風. 傷風, 有汗惡風不惡寒, 甚者, 自汗出不止, 洒洒惡風, 復齏齏惡寒.”

30) 성백효. 懸吐完譯 小學集註.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13: 116. “互文 : 같은 내용이 두 곳 이상에 나올 경우, 같은 내용을 일일이 쓰지 않고 생략하여 한 가지만 쓰는 것을 가리킨다.”

31) 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 學苑出版社. 2009: 18. “蓋風動則寒生, 寒生則膚慄, 惡則皆惡. 未有惡寒而不惡風, 惡風而不惡寒者, 所以經皆互文而互言之, 不偏此偏彼而立說也.”

3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8: 380. “桂枝湯, 治太陽傷風 ……(중략)…… 惡風寒”

3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8: 380. “麻黃湯, 治太陽傷寒 ……(중략)…… 惡風寒”

34)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7: 1294. “治太陽證, 頭疼發熱, 惡寒脊強, 身痛無汗, 脈浮緊而喘”

35)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7: 1297. “治太陽傷風, 衛實榮虛, 自汗頭痛, 鼻鳴項強, 乾嘔, 齏齏惡寒, 洒洒惡風, 翕翕發熱”

36) 喻嘉言. 喻嘉言醫學全書·尙論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20. “惡風末有不惡寒者. ……(중략)…… 惡寒末有不惡風者. 後人相傳謂傷風惡風, 傷寒惡寒, 苟簡辨證, 誤人多矣.”

37)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傷寒括要. 北京, 中國中醫藥出

傷寒에 惡風이 나타남을 언급하였다.

『傷寒緒論』(1665, 張璐)에서는 傷寒에도 또한 惡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³⁸⁾.

『傷寒續論』(1665, 張璐)에서는 “惡風하면서 惡寒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세속에서 傷風에 惡風하고 傷寒에 惡寒한다는 말하지만, 그 폐해가 크다.”고 하였다³⁹⁾.

『傷寒論注』(1669, 柯琴)에서는 “어째서 桂枝湯證의 惡寒과 麻黃湯證의 惡風을 한번이라도 헤아려보지 않았는가? 모름지기 겨울에 風과 寒은 본래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傷風과 傷寒에 모두 惡風하고 惡寒하는 것이다.”⁴⁰⁾고 하였다. 한편 傷寒條를 注解하면서 “惡寒은 본래 태양의 본증인데 여기에 다시 말한 것은 傷風의 惡寒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傷風은 바람을 만나야 惡寒을 느끼지만 傷寒은 바람이 없어도 惡寒한다.”⁴¹⁾고 하였는데, 傷風의 惡寒과 傷寒의 惡寒이 다르다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傷寒論本義』(1721, 魏荔彤)에서는 “風은 寒이 없이 홀로 다닐 수 있으나, 寒은 반드시 風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므로, 傷風에는 惡風하지만 반드시 惡寒하는 것은 아니며, 傷寒에는 반드시 惡風을 겸한다.”⁴²⁾고 하였다.

『訂正傷寒論注』(1742, 吳謙)에서는 “風이 動하면 寒이 생기고 싫어하면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惡

寒하면서 惡風하지 않고, 惡風하면서 惡寒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仲景은 傷風證과 傷寒證 가운데 惡寒과 惡風을 매번 섞어 말하였다. 이로써 傷風과 傷寒은 惡風과 惡寒으로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病의 微甚으로 변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⁴³⁾고 하였다.

『傷寒心法要訣』(1742, 吳謙)에서는 “風·寒 두 가지는 대부분 서로 相關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寒이 있을 때 風이 없을 수 없고, 風이 있을 때 寒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三陽病에 惡寒과 惡風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⁴⁴⁾고 하였다.

『傷寒正醫錄』(1744, 邵成平)은 “惡風하면서 惡寒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이는 互文이다.”⁴⁵⁾고 하였다.

『傷寒懸解』(1756, 黃元御)에서는 『傷寒論』條文 “太陽病,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疼痛, 惡風無汗而喘者, 麻黃湯主之.”를 인용하면서 惡風을 惡寒으로 經文을 바꾸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傷寒則惡寒’의 영향으로 사료된다.⁴⁶⁾

『傷寒類方』(1759, 徐大椿)에서는 傷風에 “惡風하면서 惡寒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다만 惡寒이 가벼우니 中寒이나 陰經보다 심하지 않다.”⁴⁷⁾고 하였다.

版社. 1999: 313. “太陽無汗, 惡風, 麻黃湯.”

38) 張璐. 張璐醫學全書·傷寒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14. “然寒傷營, 亦有惡風無汗而喘者.”

39) 張璐. 張璐醫學全書·傷寒續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59. “惡風未有不惡寒者. 世俗相傳, 謂傷風惡風, 傷寒惡寒, 誤人多矣.”

40) 柯琴. 懸吐完譯 柯氏傷寒論注. 대전, 주민출판사. 1999: 102.

41) 柯琴. 懸吐完譯 柯氏傷寒論注. 대전, 주민출판사. 1999: 47.

42) 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172. “風可無寒單行, 寒則必藉風行, 故中風惡風未必惡寒, 傷寒則必兼惡風也.”

43) 吳謙. 吳謙. 禦纂醫宗金鑑·訂正傷寒論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29. “蓋以風動則寒生, 惡則皆惡, 未有惡寒而不惡風, 惡風而不惡寒者. 所以仲景於中風, 傷寒證中, 每互言之, 以是知中風傷寒, 不在惡寒惡風上辨, 而在微甚中別之也.”

44) 吳謙. 禦纂醫宗金鑑·傷寒心法要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447. “風寒二者, 大率多相因而少相離, 有寒時不皆無風, 有風時不皆無寒, 故三陽俱有惡寒惡風同見也.”

45) 邵成平. 傷寒正醫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2: 85. “惡風未有不惡寒者, 互文也.”

46) 黃元御. 黃元御醫學全書·傷寒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460. “太陽病, 頭痛, 發熱, 頭疼, 腰痛, 骨節疼痛, 惡寒無汗而喘者, 麻黃湯主之.”

47) 徐大椿. 徐大椿醫學全書·傷寒類方. 北京, 人民衛生出版

『傷寒論綱目』(1774, 沈金鰲)에서는 劉完素의 말을 인용하여 “無汗에 惡風하는 것은 傷寒이니 發汗시켜야 하고, 有汗에 惡風하는 것은 傷風이니 解肌시켜야 한다.”⁴⁸⁾고 하였으니, 傷寒에도 惡風이 있음을 말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清代에는 기존의 說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明代 『傷寒論條辨』의 영향을 받은 『尙論篇』에서는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의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이후 『傷寒緒論』, 『傷寒正醫錄』, 『訂正傷寒論注』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傷寒論注』에서는 風邪와 寒邪가 본래 一體이기 때문에 惡風과 惡寒이 함께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일명 ‘風寒同氣’라 할 수 있는데, ‘風寒同氣’는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을 비판하는 醫家들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訂正傷寒論注』와 『傷寒心法要訣』에서도 ‘風寒同氣’에 근거하여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傷寒懸解』와 같이 기존의 說을 계승하여 經文까지 고치는 경우도 있었다.

4. 現代(1911년-현재)

『柯氏傷寒論注疏正』에서는 “太陽病에는 惡風과 惡寒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惡寒만 나타나거나 惡風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傷寒에는 惡寒하고 傷風에는 惡風한다는 說에 빠져서는 안 된다.”⁴⁹⁾고 하였다.

『傷寒雜病論』에서는 “惡風은 惡寒과 互文이다.

社. 2001: 169. “惡風未有不惡寒者. 但惡寒甚輕, 非若中寒及陰經之甚也.”

48)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54.

49) 李培生. 柯氏傷寒論注疏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74

傷風과 傷寒을 구별할 때 惡風이나 惡寒으로 확정해서는 절대 옳지 않다.”⁵⁰⁾고 하였다.

『傷寒論講義』에서는 “惡風과 惡寒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⁵¹⁾, “惡風과 惡寒은 互文이다.”⁵²⁾고 하였다.

『傷寒論』에서는 “惡風과 惡寒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다만 輕重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때에 따라 危重해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太陽傷風證과 太陽傷寒證은 惡風과 惡寒으로 변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³⁾

『圖說傷寒論』에서는 傷寒은 傷風보다 증상이 심해서 惡寒을 느끼게 되지만, 때로는 傷風에 가까워서 惡風을 느끼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⁵⁴⁾.

『傷寒論解說』에서는 惡寒을 대신해 惡風하는 경우도 있고⁵⁵⁾, 惡風을 대신해 惡寒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⁵⁶⁾.

『傷寒論譯註』에서는 傷寒에 惡風, 惡寒한다고 하였으며⁵⁷⁾, 傷風에도 惡風, 惡寒하지만 傷寒의 惡寒에 비해서는 가볍다고 하였다⁵⁸⁾.

『현대상한론』에서는 惡風과 惡寒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단지 惡風만 있고 惡寒하지는 않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傷風則惡風’의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 하였으며⁵⁹⁾, 『傷寒論』條文 “太陽病, 頭痛, 發熱, 汗出, 惡風, 桂枝湯主之.”의 설명에서는 惡寒을 말하지 않았지만 惡寒을 포함한다고 하였다⁶⁰⁾.

50) 劉建平 외 3인. 傷寒雜病論.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24.

51) 聶惠民. 傷寒論講義. 北京, 學苑出版社. 2000: 9.

52) 聶惠民. 傷寒論講義. 北京, 學苑出版社. 2000: 22.

53) 熊曼琪.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41.

54) 白石佳正. 圖說傷寒論. 서울, 전파과학사. 2006: 18.

55)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서울, 書苑堂. 2001: 127.

56)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서울, 書苑堂. 2001: 186.

57)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2000: 41.

58)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2000: 17.

59)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한의문화사. 2000: 65.

60)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한의문화사. 2000: 67.

이상을 종합해보면, 『柯氏傷寒論注疏正』, 『傷寒雜病論』, 『傷寒論講義』, 『傷寒論』과 같은 중국 서적들은 清代 醫家들의 비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圖說傷寒論』, 『傷寒論解說』, 『傷寒論譯註』, 『현대상한론』과 같은 일본 및 국내 서적들도 清代 醫家들의 견해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상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에 대한 시대 및

서적별로 찬반 견해 정도를 아래 표 1.로 정리 하였다. 기존의 학설을 따르는 경우는 ‘찬성’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친 경우는 ‘의심’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언급한 경우는 ‘반대’에, 각각 ‘●’로 표시하였다. 특히 『傷寒百證歌』와 『醫學入門』의 경우 문맥상 ‘찬성’이 주된 견해이고 ‘의심’은 부가적 견해로 판단되므로 ‘찬성’에 ‘●’로 표시하고 ‘의심’에 ‘○’로 표시하였다.

Table 1. 時代 및 醫書別 찬반 견해 표

時代	著 者	書 名	찬 성	의 심	반 대
宋	朱肱	活人書	●		
	許叔微	傷寒百證歌	●	○	
	成無己	注解傷寒論	●		
		傷寒明理論		●	
	錢聞禮	傷寒百問歌	●		
	郭雍	傷寒補亡論		●	
	朱丹溪	丹溪手鏡		●	
王履	醫經溯洄集		●		
明	劉純	傷寒治例		●	
	李梴	醫學入門	●	○	
	方有執	傷寒論條辨			●
	許浚	東醫寶鑑		●	
清	喻嘉言	尚論篇			●
	李中梓	傷寒括要		●	
	張璐	傷寒緒論		●	
		傷寒攷論			●
	柯琴	傷寒論注			●
	魏荔彤	傷寒論本義		●	
	吳謙	訂正傷寒論注			●
		傷寒心法要訣			●
	邵成平	傷寒正醫錄			●
	黃元御	傷寒懸解	●		
	徐大椿	傷寒類方		●	
	沈金鰲	傷寒論綱目		●	
現代	李培生	柯氏傷寒論注疏正			●
	劉建平等	傷寒雜病論			●
	聶惠民	傷寒論講義			●
	熊曼琪	傷寒論			●
	白石佳正	圖說傷寒論		●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	
	蔡仁植	傷寒論譯註		●	
	김동희等	현대상한론			●

IV. 고찰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이 明·清代를 거치면서 많은 비판이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도 언급되는 이유는 『活人書』와 이를 계승한 여러 傷寒書籍들이 현재까지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론 큰 오류를 지닌 만큼 논란의 대상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明·清代는 錯簡重訂派, 維護舊論派, 辨證論治派의 세 상한학파가 뜨거운 학술적 논쟁을 벌인 시기이다. 그 중에 錯簡重訂派는 『傷寒論』의 條文을 적극적으로 개정한 학파인데, 이 학파의 시조인 明代의 方有執이 互文說을 제시하면서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을 비판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그를 계승한 清代의 喻昌과 張璐는 적극적으로 이 說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後代로 내려오면서, 『傷寒論』 條文에 대한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에 대한 비판과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역대 醫家들은 임상에서 惡風에 의거해서 桂枝湯을 썼는데 낫지 않거나, 惡寒에 의거해서 麻黃湯을 썼는데 낫지 않는 경우를 무수히 겪으면서,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에 대해 의심을 하고, 더 나아가 적극 반대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傷風과 傷寒을 惡風과 惡寒으로 감별할 수 없으므로 有汗·無汗이나 脈狀으로 구별해야 함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배경에는 자각적 증상인 惡風·惡寒이 타각적 증상인 有汗·無汗이나 脈狀에 비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고찰해보면, 傷風과 傷寒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惡風이나 惡寒에 의거해서는 안 되며, 脈狀이나 有汗·無汗에 의거하여 감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傷風과 傷寒의 감별에 있어서 惡風과 惡寒

의 의미가 줄어들었지만, 원래 傷寒에서 惡風과 惡寒이 가지는 진단지표로서의 가치는 무시될 수는 없다. 惡風과 惡寒은 여전히 太陽表證을 판단하는 중요한 진단지표이다. 또한 傷寒病에 있어서 惡寒은 三陽病과 三陰病에 모두 존재하지만 惡風은 三陽病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惡風은 三陽病을 확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 재고할 부분이 있는데, 傷風과 傷寒에 모두 惡風과 惡寒이 나타날 수 있다지만, 과연 이들은 똑같이 표현될 수 있을까? 많은 醫家들이 傷風보다 傷寒이 더 重證이라는 데는 異見이 없다. 그렇다면 傷風의 惡風은 傷寒의 惡風과 똑 같이 표현될 순 없으며, 傷風의 惡寒도 傷寒의 惡寒과 똑 같이 표현될 순 없을 것이다.

한편 清代 柯琴의 『傷寒論注』(1669)에서는 傷風의 惡寒은 바람을 만나야 비로소 惡寒하고, 傷寒의 惡寒은 바람을 만나지 않아도 惡寒한다고 하였다. 본래 전통적으로 惡風이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아무렇지 않고 부채질이나 바람을 쏘이면 비로소 추운 것을 말하며, 惡寒이란 바람을 맞지 않아도 저절로 추운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상에서 柯琴은 傷風의 惡寒을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惡風의 개념을 혼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방⁶¹⁾은 柯琴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이를 따를 것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전통적인 惡寒과 惡風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세기 이후의 傷寒 문헌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중국 근대 傷寒家들의 견해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보다 많은 문헌 고찰 이루어지고, 이상에서 밝힌 몇몇 의문점들이 풀어진다면 惡風과 惡寒의 진단지표로서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는 보건위생 및 의식주의 개선 등으로 傷寒

61) 방정근 『傷寒論』의 “中風”과 “傷寒”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2006; 19(4): 136-146.

病的 발병률은 적다. 오히려 임상에서는 産後, 手術後, 諸虛證, 類傷寒, 七情, 泄瀉 등과 같은 內傷病에서 惡風, 惡寒이 나타난다. 또한 이때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싫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싫다.’, ‘여름에도 찬 물로 샤워할 수 없다.’, ‘봄·가을에도 추워서 내복을 여러 겹 입는다.’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표현들이 惡風, 惡寒, 惡風寒 어디에 배속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각각의 질병에서 惡風과 惡寒이 兼하여 나타나는지 아닌지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질병 사이 감별을 위해 惡風·惡寒 외에 다른 증상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차후 傷寒病에서 惡風과 惡寒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또한 內傷病에서도 惡風과 惡寒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현대에서도 진단지표로서의 惡風과 惡寒의 의미도 쇠퇴하지 않을 것이며, 임상 의료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1.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은 宋代의 朱肱이 『活人書』에서 최초로 주장하였다. 이후 宋代의 『傷寒百證歌』, 『傷寒百問歌』 뿐만 아니라, 明代의 『醫學入門』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說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活人書』의 영향력이 큰데다가 치우친 學說로 인해 醫家들의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2. 하지만 宋·元·明代를 거치면서 이說에 위배되는 의견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특히 同時代의 우리나라 『東醫寶鑑』에서는 桂枝湯과 麻黃湯의 主治證에 ‘惡風寒’이라 기록함으로써, 기

존의 잘못된 說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3. 明代에는 이 說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주장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方有執은 『傷寒論條辨』에서 互文說을 주장하며,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과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4. 清代의 『尙論篇』, 『傷寒緒論』, 『傷寒正醫錄』 등은 方有執의 견해를 계승하여 이說의 폐해를 주장하였고, 柯琴과 吳謙은 ‘風寒同氣’에 근거하여 이說을 비판하였다.
5. 現代는 清代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은 後代로 내려올수록 점차 설득력을 잃어 갔는데, 이는 後代 傷寒家들의 『傷寒論』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고, 임상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6. 傷風과 傷寒을 감별할 때 ‘傷風則惡風 傷寒則惡寒’을 따라서는 안 되며, 脈狀이나 有汗·無汗에 의거하여 감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 현대에는 傷寒病보다 內傷病的 발병률이 높으므로, 內傷病에서 惡風과 惡寒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參 考 文 獻

1. 김동희 외 15인. 현대상한론. 용인, 한의문화사. 2000: 47, 49, 63-65, 67, 105.
2.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2000: 17, 41.

3. 성백효. 懸吐完譯 小學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13: 116.
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8: 380.
5.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2007: 1110, 1294, 1297.
6. 嚴世芸. 國譯中醫學術史. 고양시, 대성의학사. 2011: 397-420, 636-646, 779-807.
7.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159.
8. 柯琴. 懸吐完譯 柯氏傷寒論注. 대전, 주민출판사. 1999: 47, 102.
9. 成無已. 懸吐完譯 注解傷寒論. 서울, 주민출판사. 2012: 126.
10. 成無已. 懸吐完譯 傷寒明理論. 서울, 주민출판사. 2006: 10.
11. 白石佳正. 圖說傷寒論. 서울, 전과과학사. 2006: 18.
12.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서울, 書苑堂. 2001: 186.
13. 熊曼琪.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41.
14. 李培生. 柯氏傷寒論注疏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74.
15. 劉建平 외 3인. 傷寒雜病論.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24.
16. 聶惠民. 傷寒論講義. 北京, 學苑出版社. 2000: 9, 22.
17.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2, 20.
18.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0: 45.
19. 郭雍. 傷寒補亡論.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2013: 138.
20. 朱丹溪. 朱丹溪醫學全書·丹溪手鏡.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55.
21. 王履. 醫經溯洄集. 上海, 上海浦江教育出版社. 2011: 26.
22. 劉純. 劉純醫學全書·傷寒治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06.
23. 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 學苑出版社. 2009: 18.
24. 喻嘉言. 喻嘉言醫學全書·尚論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20.
25.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傷寒括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13.
26. 張璐. 張璐醫學全書·傷寒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14.
27. 張璐. 張璐醫學全書·傷寒續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59.
28. 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172.
29. 吳謙. 禦纂醫宗金鑑·訂正傷寒論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29.
30. 吳謙. 禦纂醫宗金鑑·傷寒心法要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447.
31. 邵成平. 傷寒正醫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2: 85.
32. 黃元御. 黃元御醫學全書·傷寒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460.
33.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54.
34. 徐大椿. 徐大椿醫學全書·傷寒類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169.
35. 朱文鋒, 袁肇凱.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32.
36. 김강. 桂枝湯 方後註文에 관한 研究. 한국 의사 학회지. 2010; 23(1): 23-41.
37. 방정균. 『傷寒論』의 “中風”과 “傷寒”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4): 136-146.